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375-388  
<https://doi.org/10.29212/mh.2025..135.3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학계동향 : 강신항 교수 추모 특집〉

## 한국 전사편찬의 산증인이자 훈민정음 연구에 평생을 바친 강신항 명예교수를 기리며

김경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어학계 원로 교수이자 훈민정음 연구의 선구자이며, 한국 전사편찬의 산증인이었던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선생’으로 약칭)가 2025년 2월 19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본 『군사』 135호에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출발점이었던 전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한 강신항 선생의 전사편찬 업적 및 삶의 궤적을 되짚으며, 전사편찬의 역사성과 선생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2009년 12월에 접어드는 한적한 금요일, 본 필자는 한국 전사편찬의 산증인을 뵙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교대 벤처타워 501호로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익숙한 얼굴로 필자와 인터뷰팀을 맞이한 선생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11일, 21일, 28일에 걸쳐 총 6시간에 이르는 긴 구술 녹취 동안 자신의 경험과 삶을 명확한 기억과 함께 소회로 들려주었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강신항 선생은 필자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학이자, 국어학의 이름난 학자이며, 위당 정인보 선생의 사위로 알려진 노학자이다. 인터뷰는 2009년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군인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통해, 한국현대사에서 군이 담당할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강신항 선생의 구술장면(2009.12.11.)

강신항 선생과의 인터뷰는 매우 인상 깊은 만남이었다. 강신항 선생으로부터 현재 한국 군사사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활발한 연구 및 편찬 활동을 전개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태동과 그 활동상을 직접 구술로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첫 만남에서 초창기 전사편찬위원회(6·25전쟁 당시 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에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2009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구술 녹취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구성,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역할, 『한국전란1년지』 집필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과 집필 과정, 공군 정훈장교로서의 직책과 활동, 공군본부 정훈감실의 구성 및 각종 출판물

제작 과정, 그리고 한국현대사와 6·25전쟁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구술사 정리의 기본 형식에 따라 구술자의 신상 관련 사항을 들으며, 일제강점 말기의 시대상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선생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즉 일반적으로 도고온천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출생했다. 도고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중학교를 거쳐 서울로 올라와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은 당시 서울고등학교의 학풍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사와 학생들 모두 반공의식이 강해 독서회 사건과 같은 일은 거의 없었고, 혹여 적발되면 즉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학풍으로 인해서 서울고등학교에서 육사에 진학한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진학하려 했으나, 서울고등학교 남광우 선생님의 조언으로 1949년 9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국문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학도호국단에 소속되어, 정부수립 이후 서울대학교의 학풍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6일 학도호국단 간부들 사이에서 서울을 지킬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학도호국단 가입은 의무였으며, 훈련을 담당했던 교관들은 모두 학생으로 학도호국단은 40일간 훈련을 받았다.

선생은 6월 27일 밤까지 경성방송국 녹음기를 통해 “서울을 사수한다”는 방송이 계속되었다고 회상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던 날, 선생은 서울대 사학과 김성칠 교수의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그날 생도 1기생인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돌아오는 길에 국군 원대 복귀 방송을 들었으나, 당시 서울 시민들은 전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은 6월 27일 한강을 건너 안양을 거쳐 천안에 잠시 들었다가 고향으로 피난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는 좌익 학생들이 학생동맹을 조직해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다녔으며, 북한군이 점령하였던 시절, 고향에서 있었던 김일성에 대한 선전을 회상하기도 했다. 선생은 이 시기 보고 들은 것들을 자신의 생각과 함께 기록하여 『어느 국어학도의 젊은 날』(정일출판사, 1995)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또한 선생이 경험한 전쟁기간 중에 발생한 학살에 관한 기록도 있다.

## 전시상황에서 어느 국어학도의 전사편찬 작업

선생이 고향에 머무르고 있던 1950년 10월경, 김성칠 교수로부터 엽서를 받고 서울대학교가 개학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11월 2일 상경했다. 김성칠 교수는 선생에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선생은 문관으로 전사편찬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육군은 전시의 전사(戰史)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선근 정훈국장의 주도로 전사편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이병도, 부위원장에는 김상기, 상무이사에는 김성칠 등 당시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가 발족할 당시 위원장인 이병도는 문관 신분으로 대령 대우를 받았다. 그 아래로 이용희, 신도성, 김성칠 등이 위원으로, 그 밑에 민석홍, 전해중, 한우근, 김원룡 등이 역원으로 참여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는 창덕궁 옆에 있던 이왕직 사무실 건물에 위치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의 본격적인 편찬 활동은 1951년 2월경부터 시작되었다. 전사편찬의 방향성을 두고 당시에 참여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위원들 간에 의견 차

이로 인해 3월 1일부로 김성철은 사직하였다. 전사 집필은 이병도가 개설서를, 김원룡이 전투사를 맡아 집필하였다. 실제 전사편찬 위원회는 위원 5명, 역원, 책임장교 1명, 이등상사인 행정보, 조무원 2명이 있었다.

1950년 연말, 전세가 급박해지면서 전사편찬위원회는 긴급히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개별적으로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문관이었던 선생은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실 누구도 선생에게 자료를 챙기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은 “자료 없는 전사 편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료를 챙겨 이동했다. 선생이 구술한 당시 상황은 이러하다.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18일 ~ 17일 경부터 어른들은 다 가서 버린 거예요. 부산으로 이제 미리 가서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책임장교가 이제 대위인데, 1기 정훈장교 대위인데, 한마디 나한테 귀뜸을 하고 가면 되는데 문관이니까 필요 없겠다 그랬는지, 나중에 그걸 훑어지고 14개를 메고 국방부 정훈국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명동에 증권거래소 건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새로 생긴 기구니까 ‘이런 게 뭐야’ 증명서 보더니 말이에요. 계급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군복 입고 나타나니까. 거 14개를 메고 말이야”

-2009년 강신항 교수 구술기록 중에서-

전황이 급박하여 전사편찬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편제상 이전과 달리 정작 실제 전사편찬에 필요한 서류들은 미처 챙기지 못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전사편찬위원회의 위원들과 군인들은 선생이 챙겨온 14개의 서류가방 덕분에 비로소 전시 전사편찬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군번도, 계급도 없었던 문관 강

신항 선생은 무엇보다 전사편찬에 기본이 되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겨 부산으로 옮겼고, 이는 『한국전란지』 편찬의 기반이 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와 ‘국방부 전사편찬회’라는 두 개의 명칭이 혼용되었으나, 정식명칭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였다.<sup>1)</sup> 우리 국군의 전사편찬의 효시는 국방부 정훈국 예하의 ‘전사편찬회’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한국전란1년지』의 발간이었다. 이 책을 시작으로 『한국전란2년지』 등 5권으로 공간(公刊)되어 6·25전쟁 전사의 기초를 이루었다.

〈표 32〉 『한국전란지』 발간 현황

서명	대상기간	인쇄	발간
『한국전란1년지』	1950. 5. 1. ~ 1951. 6.30.	1951. 8. 1.	1951.10.15.
『한국전란2년지』	1951. 7. 1. ~ 1952. 6.30.	1953. 4.15.	1953. 4.20.
『한국전란3년지』	1952. 7. 1. ~ 1953. 7.27.	1954. 2.26.	1954. 3. 1.
『한국전란4년지』	1953. 7.28. ~ 1954. 7.31.	1955. 5.15.	1955. 6. 1.
『한국전란5년지』	1954. 8. 1. ~ 1955. 7.31.	1956. 5.15.	1956. 6. 1.

\*전거 :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8쪽.

국방부 전사편찬회는 1950년 10월 창덕궁 내에 위치한 당시 이왕직 사무실(현재 창덕궁 외병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sup>2)</sup> 1950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중공군의 공세로 전선이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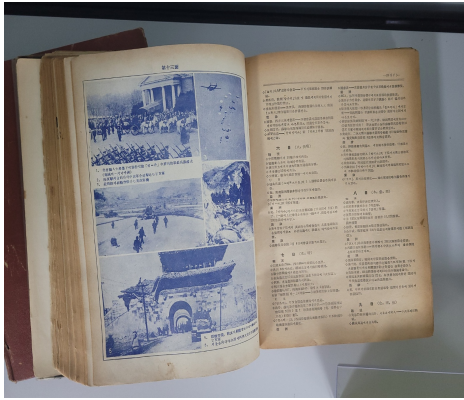


〈그림 2〉 창덕궁에 있었던 이왕직 청사 전경

- 1) 강신항, 「한국군 구술」, 『한국현대사와 군』,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자료 아카이브, 2009.
- 2)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2~17쪽.

급박해지면서 전사편찬위원회는 급박하게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은 1951년 1월 초에 부산에 도착했고, 선생은 대구에 잠시 머물다 1월 18일, 부산에 도착하여 육군 정훈감실 지도대에 배속되었다.

선생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전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사편찬위원회는 부산에 위치하여 활동했는데, 매일 대구에서 부산으로 전달되는 미국 공보원 자료를 국



〈그림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소장된 『한국전란지』

방부 공보실 공보 자료 및 외신 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정리했다.

당시 전사편찬에는 전투상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 대신 주로 연합통신의 기사, 국방부 보도과 자료, 그리고 USIS(미국 공보원) 자료가 활용되었다. 특히 USIS 홍보과에서 제공한 자료가 가장 신

빙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었다.<sup>3)</sup> 전사편찬위원회의 노력으로 1951

3) 장영민, 「한국전쟁기 주한 미국공보원의 선전 정책」, 『군사』76, 2010, 121~156쪽. 구술 당시 선생은 미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장 신뢰하는 자료로 인식했다고 구술했다. 정확하게 미국공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미국 정보 서비스(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라는 포스트를 운영했다. 이 USIS는 USIA의 현장 운영 사무소가 되었다. 1953년부터 USIS는 ‘미국 문화 정보국(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이라는 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 되었다. 1978년에 USIA는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합병되어 ‘USICA(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gency)’라는 새로운 기관이 되었다. ‘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라는 이름의 사용은 1982년에 복원되었다.

년 11월 초, 『한국전란1년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USIS 자료 뿐만 아니라 육군 정훈감실 통계실 자료를 바탕으로 전황 등의 통계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당시 육군본부의 자료는 군수실이나 통계실 자료를 활용했지만, 이 자료는 전사편찬위원회로 직접 이관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활용되었다.

『한국전란1년지』의 편찬 지침, 편찬 시기, 편찬 대상과 범위 등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병도와 김상기 사이에 편찬 관련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김상기가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1952년 김상기 후임으로 이관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전사편찬의 방침은 정훈국 소관으로, 정훈국장의 결정에 따라 수립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편찬 방침의 수립과 적용 과정은 향후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과제이다.

전쟁기간 중에 발간된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란1년지』에 대한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전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500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편찬되었으며, 이와 같은 출판 성과를 기리기 위해 훈장이 수여되었다. 『한국전란지』에 대한 평가는 『한국전란2년지』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란지』는 자료집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쟁 기간 중 유엔사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가 다수 수록되었다. 예를 들면, 피난민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장면이나 인천 전투 장면 같은 현장 사진을 많이 수록했다. 편찬과정에는 별도의 검열 절차는 없었다.

전대미문의 국제전쟁이었던 6·25전쟁이라는 혼란기 속에서, 국군은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통해 『한국전란지』 5권을 발간하여 전사편찬의 역사를 정립하였다. 전사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국방부 관계자들의 노력 또한 주목할 만한 일

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인상 깊은 것은, 혼란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전사편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군사편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매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며 학술적인 역작을 만들어낸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헌신이다. 강신항 선생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사편찬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젊은 학자였다.

## 전사편찬의 경험을 공군전사 편찬으로

선생은 전쟁 기간 중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서 군대에 있었는데, 1953년 3월 26일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었다. 공군은 대전 소재 항공병학교에서 4개월간 훈련을 받으며, 현재 사관후보 25기로 불리지만, 당시에는 학간1기로 불렸다. 훈련 수료 후 이때 막 신설된 정훈감실 군사과에서 4년간 근무했다. 병과는 정훈이지만, 독립적으로 근무였다.



〈그림 4〉 공군장교시절 동료들과 함께

선생은 1953년 8월 1일 임관하여,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공군 장교로 임명되었다. 당시 정훈감은 서임수 중령이었으며, 그 아래에 차감, 공보과, 정훈과, 행정과가 있었고 창공구락부가 있었다. 전쟁기 전사편찬에 몸담았던 강신항 선

생이 뒤이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공군장교로 임관하고, 공군사 편찬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군 정훈장교로 임관한 강신항 선생은 정훈감실에 배치된 이후, 10월 1일부로 군사과가 추가 편성되자 군사과에서 공군사를 편찬했다.

선생이 담당하였던 군사과의 주요 업무는 『공군발전약사』 편찬이었다. 이를 위해 선생은 무엇보다 사료 수집에 주목하였고, 공군본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일반명령」, 「특별명령」 등의 문서를 찾아 활용했다. 『공군발전약사』는 1954년 8월에 편찬을 완료하였지만, 실제 출판은 겨울에 이루어졌다. 이 편찬 작업은 대부분 선생 혼자서 수행하였다. 물론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가 당시 공군 정훈감실의 군사과에 유일했기 때문이었지만, 오히려 외부의 간섭 없이 사관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편찬이 가능했다.

선생이 편찬한 공군의 전사편찬 결과물은 당시 공군이 주도하고자 했던 공군 확장을 위한 ‘3개년 계획’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공군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1952년부터 공군확장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보다 앞서 공군은 1951년 말까지 1개 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F-51 20대를 포함한 총 50대의 항공기를 확보하였으며, 병력 또한 5,406명으로 증가시키는 등 전력 증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전력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52년 4월 1일부터 추진된 ‘3개년 계획’은 우선 육군의 10개 사단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1955년 3월까지 전투기 300대를 보유한 4개 전투비행단을 창설하여 북한 공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선생은 이러한 공군의 확장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요소와 주요 결정의 순간들을 『공군발전약사』에 충실히 담

아냈다.

선생의 인문학자로서의 면모는 2009년 인터뷰를 진행하며 필자가 절감했다. 일반적으로 구술이나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신이 직접 듣거나 보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도 나중에 인지한 내용을 자신의 행동과 결단으로 인위적이든 실수이든 포함시켜 구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생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양한 질문을 드렸고, 선생은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 그 가운데 6·25전쟁기 유명한 사건 관련 질문이 많았다. 일례로 팔만대장경 보존과 공군의 항공작전, ‘빨간 마후라’의 유래, 여자항공대 등과 같은 주제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예컨대, ‘빨간 마후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자신은 1957년 전역했고, ‘빨간 마후라’는 1961년 개봉하였음을 알려주었다.

공군 장교로서의 경험 중, 공군이 당시 대중 일반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점, 이정희 대위 납북사건, 학도병 및 소년비행학교 출신에 관한 이야기, 미군에 파견된 한국공군에 대한 선생의 상세한 답변은 매우 유용한 정보였다. 또한 전쟁 기간 중 공군 급여 수준, 공군이 실제로는 미



〈그림 5〉 공군장교시절 사진

군의 군사원조를 받지 못했다는 점, 군 복무 중 돈이 부족해서 집에서 가져다 충당하였던 사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던 곳에서 군수물자 전용 사례는 없었다는 구술은 선생의 공군 장교 생활의 일면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전쟁이란 전시 상황에서 모든 군대의 갈등은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대구 공군본부에 있는 동안 간부들 간의 갈등을 본 일이 없었다”는 선생의 구술은 당시 공군의 전시 대응이 매우 절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선생은 대방동의 공군본부에서 1년여 동안의 근무를 마지막으로 1957년 4월에 전역하였다. 선생은 전역하기 이전에 공군에 남을까도 생각했지만 1957년 4월 1일부터 대학에서 학문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전역 이후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1960년 성균관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결론적으로 선생은 공군에 복무하며 “공군장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다”고 회고했다.

군에 복무하며 전사편찬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선생은 종군작가단과 「창공」에 대한 회고를 강조했다. 선생은 복무 중 종군작가단을 구상하여, 염상섭, 최정희, 강신재 등이 주도한 종군작가단을 만들었는데, 이 종군작가단은 공군 교양잡지 「창공」을 만들었다.

## 묵묵히 학문에 매진한 국어학자의 삶

선생의 삶은 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걸어온 국어학자로서의 삶이었다. 일찍이 서울고등학교 재학 시절, 국어학자 남광우 선생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며 국어학자로서의 삶은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선생은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도 인문학자로서 군무원 신분으로 전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전사편찬의 실무를 담당하고, 공군 정훈장교로 공군전사 편찬을 전담하며 공군사의 기초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6〉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연구실에서

국어학자로서 선생은 대학 시절, 위당 정인보 선생의 딸인 정양완(훗날 선생의 부인)을 비롯해 이기문, 김완진, 이승욱, 정연찬, 안병희, 김열규 등 주요 국어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국어학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국어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및 중앙도서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며,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이어갔다.

선생의 국어학 관심은 무엇보다 훈민정음에 있었다. 그는 학계에서 대표적인 훈민정음 연구자로서 『훈민정음 연구』를 통해 훈민정음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훈민정음과 함께 주요 국어음운사 연구분야였던 『훈몽자회』, 『성리대전』, 『계림유사』, 『조선관역어』 등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와 한자음 연구에 괄목한 업적이다.

선생의 이러한 학문적 열정과 업적은 학계의 폭넓은 인정을 받아 대한민국 학술원상, 세종문화상, 용재학술상, 동승학술상 등 권위 있는 상들을 다수 수상했다. 특히 선생은 항상 상금을 후학의 연구기금 내지 학술단체를 위해 기부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 전사편찬의 태동, 국어학의 선구적 연구를 남긴 인문학 자를 추모하며

선생의 전사편찬 태동에 대한 기여와 열정은 아들인 경인교육대학교 강석화 교수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사의 군사사·국방사에 큰 연구성과를 축적한 강석화 교수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군사사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현재 군사사 연구를 주도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태동을 함께 하였으며, 그 기초를 닦았던 선생을 통해 한국군사사 연구의 그 출발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선생은 2025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선생을 모셔 군사편찬연구소의 그 출발 모습을 생생히 듣고 그 의미를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맞이한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러나 선생의 6·25전쟁기 전사편찬의 숭고한 역할은 기존 구술을 통해 단편적이지만 접할 수 있다.

젊은 인문학도로서 전사편찬에 남긴 업적과 국어학자이자 참스승으로서 보여준 선생의 숭고한 정신은 한국군사사 연구를 이어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연구원들과 군사사학도들에게 길이 기억될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선생의 평안한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